

광주 주남마을, 5·18 희생자 넋 기리는 ‘노란 물결’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개최

공수부대 무차별 발포 15명 숨져
만장기 행렬·시낭송·살풀이 다채
당시 유일 생존자 홍금숙씨 참석
“과거의 아픔 잊지 말고 기억해야”

“주남마을이 간직한 슬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바랍니다”

12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 입구는 ‘제12회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 행사를 준비하는 주민들로 분주했다. 행사가 시작되면서 주민들과 봉사자, 시민 등 100여명이 손목에 노란 풍선을 달고 행진에 나섰고, 마을은 노란 물결로 물들었다. ‘인권이 숨 쉬는 주남마을’, ‘민주·인권·평화’가 적힌 만장기를 들고 518m 거리에 있는 위령비로 향했다. 민주로, 인권로, 평화로 구간에 설치된 ‘민주·인권·평화의 시비’ 앞에서는 희생자들을 기리는 시 낭송도 진행됐고 위령비 앞에 마련된 무대에선 살풀이로 영령들의 한을 달랬다. 이어 위령비에 모두 올라가 손에 단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1980년 5월 주남마을 일대에서 희생된 이들을 추모했다.

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은 오월의 아픔을 기억하고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를 되새기며 각자의 방식으로 그들을 가슴에 담았다.

김금례(75)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봉사를 위해 참석했지만 이곳에 오면



12일 오전 광주광역시 동구 주남마을에서 열린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에 참석한 이들이 노란 풍선을 하늘로 날리며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매번 가슴이 먹먹한 느낌이 든다”면서 “주남마을이 간직한 슬픔을 모두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한다. 앞으로는 이런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순옥(70)씨는 “행사에 참석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45년 전 큰아이가 백일이었던 그 시절이 떠오른다”며 “희생자들을 추모하면서도 밝은 분위기로 승화시키는 모습이 인상 깊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억이 니은이 인권 문화

제 추진위원회와 지원2동 주민자치회, 주남마을 주민들이 주최하고 광주광역시와 동구 등이 후원하며 민관이 협력해 개최됐다.

‘기억이 니은이’는 과거 주남마을의 옛 지명인 지한면 녹두밭 웃머리를 기억하자는 뜻으로 “기억하라! 녹두밭 웃머리”의 초성인 기억과 니은을 상징화한 것이다. 5·18민주화운동의 아픔과 상처에서 승화된 치유와 평화를 지향하는 마을공동체를

목표로 주민들이 주도해 문화제를 개최하고 있다.

주남마을은 1980년 5월 23일 공수부대원들이 민간인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한 ‘주남마을 인권 양민학살 사건’의 비통한 역사를 간직한 장소이다. 당시 11공수여단은 마을 인근 도로를 지나던 미니버스를 향해 총격을 가했고 15명이 현장에서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수부대원들은 부상자 중 2명을 마을 뒷산으로 끌

고가 총살한 뒤 암매장했다. 주남마을 인근 양민 학살지는 5·18 사적지 제14호로 1998년 지정됐다.

이날 문화제에는 ‘주남마을 인권 양민학살 사건’의 유일한 생존자인 홍금숙씨가 참석했다. 홍씨는 그동안 문화제에 참여하지 못한 이유를 밝히며 그날 자신이 겪은 기억을 설명했다.

홍씨는 “트라우마 때문에 이곳을 오기 쉽지 않았지만 약을 처방받고 이 자리에 참석했다”며 “묘비에 있는 두 분은 저와 같이 와서 사살당한 분이 아닌 또 다른 차량의 희생자이다. 저와 함께 끌려온 분들의 시신을 아직 찾지 못했다. 그날의 진상이 더 밝혀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마을 주민들은 슬픈 과거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매해 ‘기억이 니은이’ 인권문화제를 열고 있다.

오전 행사가 끝난 뒤 오후에는 △헌법속 인권 찾기 퀴즈 △마을 스탬프 투어 △평화의 꽃 피움 등 주남마을의 역사적 가치를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참석자들이 행사를 다채롭게 즐겼다.

이철성 위원장은 “주민들이 주도한 행사에 찾아온 방문객들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주남마을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과거의 아픔을 잊지 않고 오래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서 “많은 분들이 마을 내 주요 사적지를 탐방하며 숭고한 뜻을 기리고 스스로 그 가치와 의미를 깨닫길 바란다”고 말했다.

글·사진·정승우 기자 seungwoo.jeong@jnilbo.com

금호타이어 노조 “화재 한 달… 대주주 아무런 대책 없어”

금호타이어 노조가 광주공장 화재 발생 한 달 가까이 지났음에도 정상화 대책을 내놓지 않은 대주주 더블스타를 강하게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 금호타이어지회는 12일 성명문을 내고 “화재 발생 이후 26일이 지났지만,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경영진은 여전히 명확한 입장과 대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2500여명의 노동자와 2만여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광주공장 이전과 신공장 건설을 포함한 종합

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10~11일 더블스타 경영진과 면담을 진행하며 재원 조달 방안과 공장 이전 계획 등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으나, 투자자 눈치보기에만 급급하고 광주공장 복구에 대한 구체적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금호타이어 경영진이 독립 경영권을 보장받고 있는 만큼, 자체 정상화 계획을 수립해 제출한다면 판단하고 검토하겠다”며 “하지만 더블스타가 이를 거부

하거나 방해할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금호타이어 사측은 “피해 복구와 공장 이전을 포함한 정상화 등 수습 대책을 마련 중이며 노사 협의를 통해 성실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호타이어는 국내 경영진의 독립 경영, 책임경영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며 “회사의 정책 등 주요 사항에 대해 경영진의 판단, 경영진은 회사 발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이정준 기자

보성 농로서 트랙터에 불… 재산피해 1100만원

전남 보성군 한 농로에 세워진 트랙터에서 불이 나 차량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2일 보성소방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11시56분께 전라남도 보성군 겸백면의 한 농로에 있던 트랙터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장비6

대, 인력 17명을 투입해 23분만에 불을 껐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트랙터가 완전히 불에 타 소방 추산 1100여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담배꽂초 부주의로 인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이정준 기자

광주 최저임금 준수율 84.8%…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

광주노동권익센터, 2025년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조업 98.9%·편의점 73.6%

광주지역 최저임금 준수율이 84.8%로 지난해보다 소폭 하락한 가운데, 편의점 업종의 준수율이 73.6%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노동권익센터는 12일 ‘2025 광주지역 최저임금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사는 광주지역 노동자 501명과 사업주 17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광주 최저임금 준수율은 84.8%로 지난해 대비 2.1% 낮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의 최저임금 준수율이 98.9%로 가장 높았고, 편의점이 73.6%로 가장 낮았다.

편의점·마트·음식점·카페·판매·경비·정소 미화·제조업 분야 노동자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되길 바라는 정책은 ‘최저임금 인상’(146건)이었다. 이어 ‘5인 미만 사업장 및 초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122건)이 뒤를 이

었다.

‘연차휴가·연장근로 수당·주 52시간제 등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관련해선 응답자 중 49.5%가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사업주는 ‘현행대로 유지’ 의견이 25.7%로 가장 많았다.

내년도 희망 최저임금 인상 폭에 대해선 노동자 26.7%가 ‘300~400원 인상’, 26.1%는 ‘100~200원 인상’을 선택했다. 반면 사업주의 68.4%는 ‘동결’을 희망한다고 응답했다.

‘만 60세 정년 연장’에 대해선 노동자와 사업주 각각 72.9%, 64.3%가 찬성해 공감대가 확인됐다.

정찬호 광주노동권익센터장은 “대체로 준수율이 80% 중반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반 사업장이 15%대에 이르고 있다”며 “특히 청소년 노동이 많은 편의점이 70%대여서 여전히 노력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정준 기자

광주·전남 이번 주말 최대 100mm 비… ‘강풍 동반’

이번 주말 광주·전남은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12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3일 광주·전남지역 최저기온은 17~20도, 최고기온은 22~26도로 전망된다.

이날 광주·전남 지역은 열대 수증기가 유입돼 20~80mm의 비가 내리겠으며 전남 남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예보됐다.

토요일인 14일은 최저기온은 20~22도, 최고기온은 24~28도로 평년과 비슷하겠다. 이날 역시 20~80mm의 비가 예보됐으며 전남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순간풍속 초속 20m 내외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보돼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도 유의해야겠다.

불륜 들킬까 동료 성범죄자로 몬 30대 여성 징역형

무고죄로 징역 1년

남편에게 불륜 사실이 들통날까 두려워 직장 동료 남성을 성범죄자로 허위 고소한 3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장찬수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 B씨를 강간미수 등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와 B씨는 그해 1월, 회식을 마친 후 B씨의 자택에서 성적인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남편이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추궁하자, B씨에게 성범죄 피해를 입었다고 거짓말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B씨는 자택에 설치된 홈캠(가정용 촬영 기기)의 영상을 통해 억울한 누명을 피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장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고, 반성의 태도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정유철 기자